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河由貞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研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政策研究를 주요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시아협력 및 통일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視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 세계지역연구센터 (東北亞팀, 東西南亞팀, 美洲팀, 유럽팀),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東北亞연구개발센터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통상팀과 FTA연구팀, 통일국제협력팀 등 시의적절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KIEP주간세계경제분석』, 월간 『KIEP세계경제』,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3460-1001, 1114 / FAX : 02)3460-1122, 1199
URL : <http://www.kiep.go.kr>

지역리포트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河由貞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요약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EC)는 CIS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소규모 지역기구에 앞장서서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을 달성하고자 2001년 6월 공식 출범하였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5개국 정상은 2000년 10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기존의 CIS 관세동맹체제를 바탕으로 EEC를 창설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본 지역리포트는 CIS 경제통합 추진의 배경을 고찰하고, 관세동맹이 심화된 이후 EEC 5개국 역내교역관계 변화를 전망하며, 나아가 CIS 광역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방의 해체 직후 체제전환과 동시에 자주경제의 기반을 수립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구소련 지역의 신생독립국들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CIS 광역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이는 역내 무역의 빠른 감소가 독립 이후 CIS 각 회원국의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구소련 지역에서 과거 단일경제권내 공화국을 망라했던 전국적인 지역간 생산망(inter-regional supply linkage)이 해체되었을 뿐 아니라, 각 정부가 독자적으로 무역정책을 채택하면서 무역장벽이 높아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CIS 각국은 역내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진하여 교역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경제적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출발로서 1993년에는 CIS Economic Union, 즉 CIS 경제연합이 창설되었다.

최근 CIS 회원국간 경제통합 논의에서 새로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舊공산권 지역에서도 경제통합의 실현이 가지는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8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구소련지역 체제전환국들은 세계경제질서로 조기에 편입되어야 할 과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최근 대륙별로 경제통합체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지역주의 강화가 세계경제의 주요 동향으로서 떠오르고 있어 지역별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5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이 중·동구 10개국 가입과 함께 더욱 심화, 확대될 전망이다. CIS 12개국에게 경제통합의 추진은 세계경제·무역질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EEC의 결성이 가져올 무역측면의 효과를 전망하기 위하여 EEC 5개국의 대외교역관계와 구조를 지역별, 품목별로 살펴보았다. 역내 무역관계에 포함되는 상품은 그 원산지에 따라 러시아, 러시아를 제외한 EEC 회원 4개국, CIS 내 EEC를 제외한 7개 회원국, 그리고 CIS 역외지역 국가 상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EEC 역내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對CIS 무역에서 EEC 4개국 회원국은 주로 1차 상품으로 특화된 對CIS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어 러시아와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관계를 이루고 있다. 둘째, 러시아를 포함한 EEC 5개국은 기타 CIS 7개국에 대해 역내시장 점유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이다. 두 지역의 수출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양지역의 상품이 서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역외상품은 EEC를 포함한 전체 CIS국가에 대해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EU를 위시한 주요 서방국가의 對CIS 수출구조는 주로 고부가가치 자본재를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역내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내교역구조에 미루어 볼 때 EEC 내 관세동맹이 강화될 경우 역내 5개국 교역관계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관세동맹의 심화 이후 기타 CIS국으로부터 수입은 값싼 역내 수입으로 전환할 것이다. 특히 평소 러시아産 상품에 대해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던 EEC 각 회원국은 러시아産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교역조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동맹 밖에 존재하는 기타 CIS 7개국의 경우 EEC 역내상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다. 즉 역내상품이 기타 CIS 상품을 대체하여 향후 EEC 역내시장에서 회원국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CIS 역외상품의 EEC 역내시장으로의 유입은 관세동맹 심화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구소련 해체이후 CIS 회원국의 교역상대는 역외시장을 향해 다변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수입에서는 역외상품이 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공급·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EEC 역내무역 증가에 의해 역내국의 소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관세동맹 내부뿐 아니라 CIS 역외産 수입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시켜 무역창출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향후 EEC 회원국간 단일무역정책이 기타 CIS국가를 포함한 역외국에 대해 지나치게 보호적이고 배타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표적으로 역내 단일관세율(Common External Tariff, CET)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절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벨로루시를 제외한 3개국이 역외국가와 교역관계 발전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각국이 WTO 가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WTO 가입협상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높은 CET를 제정함으로써 EEC가 보호주의 강화를 위한 관세동맹으로 선회할 가능성 역시 현재로서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단, WTO 가입이 개별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EEC 심화보다 WTO 가입이 우선시될 경우 EEC 단일무역정책 수립은 다소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재 CIS의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적으로 보다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수립하고자 희망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지역 내 많은 현안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외정책에서 CIS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EEC

대외교역관계의 전개방향에 따라 EEC 및 CIS 광역경제통합 전망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EEC가 러시아와의 양자간 교역관계 뿐만 아니라 역내 다자간 교역관계의 고른 발달에 기여하고 EEC는 CIS 내 주요 경제권으로 발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기타 CIS 회원국이 EEC 가입을 희망하게 되고 EEC 확대가 진행되어 5개국의 소규모 경제통합체인 EEC로부터 CIS 광역경제통합을 실현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둘째, EEC의 역내 교역구조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수레바퀴의 살과 같은 구조, 즉 hub-and-spoke 형태의 현재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다. 즉 관세동맹의 심화가 러시아와 역내 개별국의 양자간 관계 강화에만 기여하고 다자간 협력강화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이때 CIS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관계를 수립하는 등 각자의 대안을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CIS에서 복수의 경제권으로 나누어진 현재의 구조가 심화될 것이다.

CIS 각국이 외환위기로부터 빠른 회복을 기록함에 따라 CIS의 대외경제관계 또한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CIS 경제에 대한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여, 한국은 변화하는 CIS 내 통상환경에 대한 꾸준한 최신정보수집을 필요로 하고 있다. CIS의 역내교역 강화는 소득창출로 이어지고 이제까지 꾸준히 역외국가 상품에 대한 품목별 수요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바, 향후 유망한 수출시장으로서 진출 가능성에 항상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차 례

국문요약	1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1
제2장 CIS 역내경제관계의 발달	13
1. CIS 역내교역관계의 변화	13
2. CIS 경제통합의 추진	19
가. CIS 경제통합 추진의 배경	19
나. CIS 경제통합 추진 동향	20
제3장 EEC 출범과 교역관계의 변화	23
1. EEC의 출범	23
가. CIS 내 무역협정 동향	23
나. EEC의 출범과정과 특징	27
2. EEC의 대외교역관계	31
가. EEC의 지역별 교역구조	31
나. 품목별 교역관계의 변화	39

제4장 지역경제통합의 심화 및 확대 전망	43
1. EEC 역내자유무역의 확대	43
가. EEC 무역관계 전망	43
나. EEC의 역외무역정책 전망	45
2. EEC 및 CIS의 향후 전망	48
3. CIS 각국의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51
참고문헌	53
Executive Summary	57

표 차례

<표 2-1> 독립 이후 CIS 각국의 대외교역구조 예측치	15
<표 3-1> CIS 내 양자간 무역협정 현황	24
<표 3-2> 복수국가에 의한 CIS 내 무역협정 동향	26
<표 3-3> EEC 5개국과 기타 CIS 회원국의 대외부문동향 (2000년 기준)	32
<표 3-4> EEC 4개국의 러시아産 상품수입 현황(1994~2000)	36
<표 3-5> 러시아의 EEC 4개국으로부터 수입(1994~2000)	37
<표 3-6> EEC 각국의 對러시아 교역수지 동향(1994~2000)	38
<표 3-7> 지역별 러시아 수입구조(1996~1999)	40
<표 4-1> EEC 5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47

그림 차례

<그림 2-1> CIS 12개국 총교역에서 역내교역 비중(1991~2000)	16
<그림 3-1> EEC의 조직과 기구별 기능	28
<그림 3-2> EEC 역내교역의 국가별 구성(1994~2000)	33
<그림 3-3> 권역별 역내교역의 비중 변화(1994~2000)	34
<그림 3-4> 권역별 역내교역의 집중도 변화(1994~2000)	35
<그림 4-1> EEC의 지역별 수출입구조	45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구소련에서는 체제전환 이후 연방의 해체와 함께 신생독립공화국의 탄생이 진행되었다. 이들 지역에서 독립된 통화의 발행을 포함하는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실행이 요구되었으며, 지역 내 사회주의 경제권의 해체는 수요와 공급망의 재편성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자립경제 수립과 체제전환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맞이하게 된 동구의 체제전환국들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간 準경제 통합 관계를 당분간 유지하거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등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이유로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의 신생공화국들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광역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국가간 자유무역 협약체결이 확산되면서, CIS에서도 경제통합 가능성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CIS 지역 내 경제통합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舊공산권 지역에서도 각국이 지역경제통합과 역내 자유무역 증진이 가져올 이익을 널리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8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면서 자신감을 얻게된 구소련지역 체제전환국은 세계경제질서로의 조기편입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5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이 중·동구 10개국 가입과 함께 더욱 심화, 확대될 전망이어서, CIS 12개 회원국은 세계경제·무역질서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이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1) Balassa(1991), Krivogorsky and Eichenseher(1996).

경제통합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통합 실현에 대한 CIS 회원국 각국의 정책 및 입장 또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러시아 주도로 이끌려온 CIS 질서가 점점 다원화되어온 바와 무관하지 않다. CIS 결성 10년을 맞이한 2001년 현재 원래의 광역통합 시도는 거의 좌절되었으며 대신에 CIS에는 다수의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즉 러시아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던 CIS 광역의 경제통합 계획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일부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 별도로 각자의 다자간 경제통합 기구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주도의 지역 내 질서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되는 이러한 움직임들로 인해 CIS 내 경제통합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 지가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을 회원국으로 2001년 6월 정식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EC)를 통해 최근 CIS 경제통합의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우선 CIS 내 경제통합 동향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경제통합의 효과 및 그 배경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또한 포함하였다. 정치, 안보 및 군사,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CIS 통합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던 기존연구와 차별을 두면서, 본 보고서는 관세동맹 심화가 역내국의 대외경제관계 변화에 가져올 효과를 전망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물론 EEC의 확대 및 향후 CIS 광역통합에 대한 전망 부분에서는 통합의 정치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여 지역의 실상을 고려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舊소련지역 국가(former Soviet Union countries(FSU) 또는 newly independent states(NIS))는 발트 3국을 제외한 우크라이나,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12 개국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역내 및 역외교역을 중심으로 한 CIS의 대외경제관계를 다루고 있어, CIS 지역의 통상환경 연구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CIS 각국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에서 빠르게 벗어났고 향후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앞으로 EEC 역내 자유무역의 확대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외국가와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역점을 두었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지 면담 및 자료수집을 통해 수행되었다. 문헌조사의 대상은 CIS 역내경제 통합을 다룬 기존 연구였으며, 추가적으로 개발도상국간 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 지역경제통합 사례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수집하여 EEC 역내교역구조 분석에 참고하였다. CIS 지역에서 수집한 무역통계자료의 경우 작성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국별, 자료별 기준이 통일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부득이하게 IMF나 World Bank, PlanEcon 등 非CIS지역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본 보고서는 CIS 경제통합 추진의 배경에서 출발하여,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를 중심으로 한 향후 역내교역의 전개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³⁾ EEC의 향후 대외경제관계 변화를 제 3자적 입장에서 보고 있는 본 보고서는 EEC 결성이 역내 교역구조 발전에 대해 가져올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非회원국의 對CIS시장 수출 환경변화로 한정하였

3) 관세동맹결성의 경제적 효과는 trade creation, 즉 무역창출효과와 trade diversion, 즉 무역전환효과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관세동맹의 효과로서 역내국가의 소득 증가, 기술이전 및 투자 확대에 의한 산업발전 등까지 포함하는 동태적 효과(dynamic effect)를 다룰 수 있다. CIS 내의 관세동맹 결성 효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halopoulos and Tarr(1997)를 참고하기 바람.

다. 이를 위해 1994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역내교역구조의 특징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EEC 역내 국가별 그리고 품목별 무역관계의 변화를 점검해 보았다.⁴⁾ 특히 품목별 무역구조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EEC 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원산지별로 그룹짓고 역내상품에 대하여 대체적 그리고 보완적 관계가 있는 지역을 분류하여 보았다. 본 보고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심화 및 확대전망 부분에서는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향후 EEC의 성과가 CIS 광역경제통합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계획경제 하 구소련의 지역간 교역 및 경제관계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그러한 경향이 체제전환과 연방의 해체 이후 지역 내 경제관계 재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EEC의 출범배경 및 정책, 기구구성을 소개하고, EEC 참가 5개국의 역내 및 역외교역관계 특징 및 발전동향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EEC의 교역구조를 분석하고 앞으로 관세동맹의 심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전망하였다. 이어 CIS 회원국별 관계를 염두에 두고 EEC의 확대 및 CIS 광역경제통합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이 향후 CIS 각국의 대외경제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히 논의하였다.

4) IMF의 자료에서 1994년 이후 12개 모든 CIS 회원국의 교역상대국에 따른 연도별 수출입 규모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제2장 CIS 역내경제관계의 발달

1. CIS 역내교역관계의 변화

소비에트 연방(Soviet Union)의 출범 이후 약 80년 동안 지속되어온 사회주의 단일경제권은 1991년 소연방의 해체와 함께 와해되었다. 구소련지역의 신생공화국들은 이후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구성을 통해 구소련 시절의 연방체제로부터 각 공화국의 “평화로운 분리(peaceful divorce)”를 이루어왔다. CIS가 2001년을 기하여 결성 1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일어난 정치적인 구도 변화와 함께 이 기간 동안 구소련 지역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12개 신생독립국이 체제전환과 함께 자립경제체제를 이루어왔다는 점이다.⁵⁾ 여기서 경제통합의 동기와 연관이 되는 대목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12개 신생공화국이 대외경제부문에서 교역상대국의 다변화를 겪었다는 데에 있다. 즉 시장체제 도입 이전에 형성되었던 사회주의 국가간의 전통적인 경제관계는 약화되었고 반면 서방의 국가들과 새로이 교류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체제전환이 가져온 경제구조 변화의 결과로 설명된다.

사회주의 경제하의 국내외 생산수급망은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계획경제하에 정부는 지역별로 산업특화시책을 실시하여 각 지역 및 기업에게 전국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⁶⁾ 대외무역관계 또한

5) CIS의 창설과 함께 채택된 CIS 헌장(CIS Charter)은 회원국간 협력강화와 정책의 조정을 이루어내며, 궁극적으로 과거 연방체제의 해체에 따라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막는 것이 CIS 구성의 목표임을 내포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제훈(1993)을 참고.

6) Krivogorsky and Eichenseher(1996)는 구소련 체제하 344개 산업분류 중 109개 부문에서 단일 업자가 전체 공급의 90%를 생산하고 있다고 조사하였다.

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이루어졌다. 해외수출과 수입은 포괄적인 경제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취급되었고 무역은 정부소유의 국제무역기구(foreign trade organization)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무역의 형태를 유지하였다.⁷⁾ 그 결과 사회주의 경제는 국내 및 국제적인 분업 및 수급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⁸⁾ 이러한 계획경제식 생산수급망 체제 내에서 공화국 내지는 구소련의 지방들은 외부로부터의 경쟁에서 격리되고, 연방 내부의 지방단위간 거래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으며, 그 결과는 높은 연방 내 역내교역 비중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계획에 의한 인위적인 지역별 생산특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폐쇄적인 교역 및 생산체제는 계획경제의 종식과 함께 변화를 맞이하였다. 체제전환과 함께 지역간 비교우위를 반영하지 못한 사회주의 시절의 왜곡된 분업망은 빠르게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교역관계로 전환될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⁹⁾ 구소련 내 공화국을 망라하며 사회주의 단일경제권을 지탱해온 전국적인 지역간 생산망(inter-regional supply linkage)의 해체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는 역내무역의 빠른 감소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방의 해체 이후 구소련 공화국이 독립 경제를 이루면서 이들 사이의 교역은 지방간 거래가 아닌 대외무역관계로 변화하였으며 CIS 역내시장을 두고 역외국가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의 CIS 역외상품은 점진적으로 역내교역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무역 상대국이 다변화되는 양상은 보다 뚜렷해졌다.

구소련이 해체되기 이전에 발견되는 역내교역의 왜곡정도는 이미 연방 해체 이후 신생독립국의 대외교역관계 변화의 규모와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이다. Kaminski, Wang and Winters(1996)는 연방의 해체 전인 1980년

7) Kaminski(1996), Kaminski, Wang and Winters(1996), 홍성원(1996).

8) Winiacki(2000).

9) *Ibid.*

대 구소련 지방간 수급망을 조사하면서 역내교역 규모가 주어진 경제적 조건이 허용하는 한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객관적인 조건만을 고려하였을 때 실현가능한 구소련 공화국의 대외교역관계를 중력모델(gravity model)을 응용하여 추정한 결과, 심각한 과다무역(overtrade)이 지적되었다. (표 2-1 참고)

Frankel(1996) 또한 무역집중도(trade concentration index)를 이용한 유사한 분석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까지 CIS의 전반적인 무역 실적에 비해 역내교역의 비중이 비대함을 지적, 과다무역의 증상이 존재함을 증명한다. 이들 결론들은 바꾸어 말하면 구소련의 지방단위가 훗날 공

〈표 2-1〉 독립 이후 CIS 각국의 대외교역구조 예측치

(단위: %)

	역내수출비중 실측치	CIS역내수출비중 예측치	對EC+EFTA 지역 수출 예측치
아르메니아	97	27	35
아제르바이잔	94	24	35
벨로루시	90	32	37
그루지아	94	20	31
카자흐스탄	90	27	30
키르기스스탄	98	27	26
몰도바	95	37	39
러시아	68	26	44
타지키스탄	86	16	30
투르크메니스탄	91	26	35
우크라이나	84	22	33
우즈베키스탄	84	33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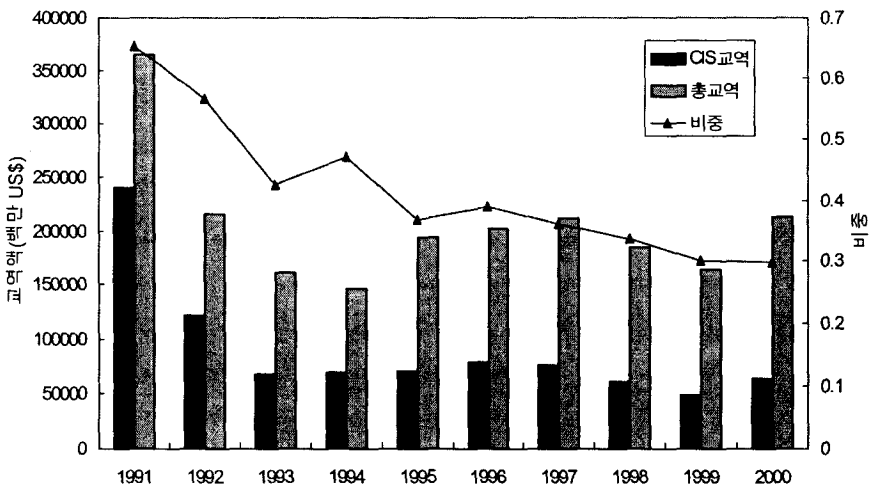
주: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을 제외한 구소련 공화국의 1980년 중반 교역상황을 바탕으로 산정함.

자료: Kaminski, Winters and Wang(1996).

화국으로 분리·독립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자유무역을 지향할 경우 역내교역은 정상적인 교역규모에 이르기까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의미한다.¹⁰⁾

한편, 연방의 해체와 국경의 분리에 의해 각국이 별도의 무역정책을 채택한 결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아졌다.¹¹⁾ 이것은 국경의 설치와 함께 생겨난 역내교역의 주요 장애물이었다. 또한 수입장벽과 함께 CIS 및 체제전환국에서는 국내수요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가 뒤따랐다.¹²⁾ 이러한 방침은 CIS 출범 이후 구소련 지역 각 공화국에서 생산이 위축됨에 따라 국내수요의 충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그림 2-1〉 CIS 12개국 총교역에서 역내교역 비중(1991~2000)



주: 비중은 총교역에서 역내교역의 비중.

자료: PlanEcon, 각년호.

10) Djankov and Freuner(2000), Kaminski, Wang and Winters(1996).

11) Krivogorsky and Eichenseher(1996).

12) TACIS(2001b).

상황에 대한 대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간 무역의 규제는 결과적으로 역내 수출에 대한 수요감소로 이어졌으며 결국 체제전환 초기의 심각한 생산저하(output fall)가 전개되도록 기여하였다.¹³⁾

구소련지역 신생독립국 간 경제적인 괴리가 생겨나고 있었지만 경제구조와 역사를 공유하여 왔기 때문에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서 이들이 과거 단일했던 사회간접시설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곤 한다. 폐쇄적인 국내외 생산수급망에 따라 구소련 연방 내부의 사회간접망 또한 닫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구소련 경제의 사회간접망은 연방의 각 지역간 생산공급관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전하였던바, 이는 계획된 수급망 밖의 지역과의 지리적인 고립을 의미하였다. 예를 들어 에너지의 경우 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일차적인 공급처는 역내시장였으므로 서방으로의 운송로가 상대적으로 미발달 상태인 것에 반하여 구소련 내부 지역을 연결하던 운송망은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최근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운송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운송로 사용에 관한 협상 및 개발은 여전히 러시아와 CIS 회원국간의 주요 경제협력 사안 중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건데 구소련지역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 변화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과거 계획경제하 지역간 교역관계를 바탕으로, 여전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舊연방 내 국가는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둘째, 단일경제권이 붕괴된 이후 국가별 무역장벽의 도입과 제도의 분화는 소위 국경효과(border effect) 또는 국내경제로의 왜곡효과(domestic economy bias)를 야기시켰다. 즉 구소련의 지방단위로서 공화국들이 내부 거래자로서 누렸던 잇점이 국경의 분리 이후 줄어들면서 지속적으로 CIS 내 신생공화국간 경제적인 거리감을 증가

13) Winiecki(2000).

시키고 있다.¹⁴⁾

CIS 결성 직후 각국의 대외경제관계 운영방향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과거 하나의 경제권이었던 점에서 CIS 역내국의 대외경제관계는 여전히 역내 협력관계 유지에 중심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각국은 왜곡된 수요공급구조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외부 경제로 다가가 보다 다양한 대외관계 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명한 사실은 각국이 독립적인 무역제도를 갖춘 이후에는 역외로의 무역전환이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국가간 과거와 같은 수준의 밀접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CIS 내 역내경제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우호적인 무역정책을 통한 배려가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립 이후 CIS 각국 무역정책의 기본현안은 CIS 역내경제관계를 지배하는 두 가지 상반되는 효과간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고 하겠다.¹⁵⁾ 사실상 독립 이후 역외무역으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의 결과이지만 언제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역내무역의 빠른 감소는 독립이후 CIS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교역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극복하고자 CIS 각국은 경제통합을 통한 역내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다.

14) Dijankov and Freuner(2000)는 국가간 무역관계의 결정요인(determinants)을 조사하기 위한 CIS 사례연구에서 국경효과(border effect)를 증명하고 있다. 국경효과의 작용에 따라 국외의 교역상대자는 국내교역상대자에 의해 차별을 받게 되는데, 이는 무역장벽, 사회간접망의 공유에 따른 국내교역의 잇점, 그리고 역사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 체체전환 직후 CIS 각국의 대외경제관계 변화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두 가지 상반되는 힘의 관계로 종종 비유된다.

2. CIS 경제통합의 추진

가. CIS 경제통합 추진의 배경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지역 내 국가들이 자유무역 협정 내지는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주요 동향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동구 유럽의 체제전환국들이 EU 단일시장의 일부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는 동안, 구소련지역 12개 공화국은 상호 교역 관계 및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제통합체 결성을 추진해왔다. CIS 경제통합추진의 배경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조명이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지적한 신생독립국에서 독자적인 경제구조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구소련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연방 내 단일경제권 해체는 지역간 무역, 생산, 노동 흐름의 단절과 혼란을 초래하였다.¹⁶⁾ 일부 공화국에 특정 부문의 생산이 특화되어 집중된 반면, 많은 신생공화국은 산업별로 외부경제에 대한 의존이 높은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신생공화국은 기타 공화국과의 경제관계 유지를 희망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신생국들이 체제전환 및 독립경제의 기반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통된 문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점 또한 초기 체제전환국이 경제통합을 고려하게 된 유인이 되었다.¹⁷⁾ 예를 들어 각국이 역내 지불시스템 구축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통화제도의 운영에서 협력을 강화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기대되었다.

셋째, 무엇보다도 경제통합의 추진 및 무역장벽의 완화는 무역규모를 증가시켜 체제전환의 비용을 보상하고 전환기 해외수요 감소 및 국내생산

16) Sakawa and Webber(1999).

17) Michalopoulos(1993).

위축에 따른 거시경제적 불안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각국의 경제는 구소련의 폐쇄적인 생산수급 및 무역구조를 극복하고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기까지 과도기를 거치고 있었다. 이 기간중 역외로의 교역상대를 확대하기까지 과정에서 무역수지 악화가 지속될 경우 거시경제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었다. CIS 내 자유무역의 확대는 역내교역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국제수지의 악화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이는 CIS 뿐 아니라 중·동구에서 경제통합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¹⁸⁾

비슷한 이유로 중·동구의 여러나라는 독자적인 지역 내 자유무역조약의 추진을 대신하여 EU로의 가입을 목표로 하였으며, 2002년 1월 현재 유력한 10개 국가는 조만간 새로운 회원국이 되기 위한 가입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CIS 12개국은 일찍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역내자유무역 실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제협력체를 추진해 왔다.

나. CIS 경제통합 추진 동향

1991년 CIS의 창설을 알리는 알마타 선언(Alma-Ata Declaration)에서 각국은 이미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CIS 내 단일경제권(single economic space)의 발전 필요성에 동의하였다.¹⁹⁾ 선언은 회원국들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대부분의 구소련지역 신생독립국이 독립직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따라서 독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성하기에 앞서 경제회복과 체제전환을 이루기 위한 역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에 의견을 같이 하였

18) Winiecki(2000).

19) 본 선언은 1991년 제안되어 1993년 민스크 정상회담에서 조인되었다.

다. 아직 대외교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러시아 이외의 외부시장과 교역을 개척하고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성과는 당장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 CIS 내 단일경제권이 설치될 경우 실현될 긍정적 경제효과에 동의하게된 12개 회원국 정상은 알마타 선언을 통해 앞으로 단계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제통합의 첫 단계로서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 주도하에 1993년 5월 CIS 정상회의(Council of Head of States) 특별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CIS 회원국은 1993년까지 계속된 각국의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경제공동체가 시급히 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들이 보여준 통합심화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경제연합(Economic Union)의 구상으로 이어져, 각국은 같은 해 9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경제연합의 시작을 알리는 조약(Economic Union Treaty)에 서명하였다.²⁰⁾

1994년 국가간 경제위원회(Interstate Economic Committee, IEC)가 설치되면서 Economic Union, 즉 경제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었다. 즉 IEC는 CIS 내 지불동맹(payment union)을 구성하고 역내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며 역외에 대해 공동관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밖에 참가국간 에너지 및 운송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정부가 공동으로 지역 내 다국적 기업을 설립하자는 제안까지 검토되었다.²¹⁾ 경제연합 실현을 겨냥한 구체적인 과제의 하나로서 가맹국간 자유무역지대의 구성이 추진되었으며 1994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1999년에는 자유무역에서 제외되는 예외품목의 규모를 줄이고 CIS 회원국간 무역정책 단일화를 앞당기고자

20) Sakawa and Webber(1999), p. 386.

21) *The Moscow Times*, Oct. 26, 1994.

기존의 협정에 대한 수정과 보완작업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역내 서비스, 재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한 CIS 경제연합의 구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2000년까지 CIS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러시아, 벨로루시와 함께 아르메니아가 조약의 비준을 미룸으로써 CIS 내 경제연합의 본격적인 실현은 시작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²²⁾

CIS 경제연합의 순조롭지 못한 추진은 CIS 경제통합이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경제통합의 추진의 걸림돌로서, 우선 각국이 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출발로 삼은 CIS 기구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출범 직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대로 CIS는 그 기구적 성격이 애매하였고 구체적인 목표제시에 실패하였다. 무엇보다도 CIS 기구의 권위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고 의결사항에 대해 회원국들의 실천의무를 요구할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는 경제통합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Sakawa and Webber(1999)는 각국이 독립국으로서의 경제적 주권수호의지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각국이 당면한 경제현안의 우선 순위가 달랐다는 점 또한 경제통합 추진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²³⁾

22) 레오니드 쿠츠마(Leonid Kuchma)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국가재정의 악화를 우려, CIS의 자유무역조약의 조인을 늦추고 있다면서, 이는 CIS 내 경제협력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중 하나임을 지적하였고 CIS 경제통합확대의 실현을 위해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하였다. *The Moscow Times*(Jan. 27, 2000).

23) 이성규·최병희(1997)는 신생국가의 강한 경제적 주권수호의지에 대해 경제민족주의라고 지칭하였다.

제3장 EEC 출범과 교역관계의 변화

1. EEC의 출범

가. CIS 내 무역협정 동향

CIS 내 광역의 자유무역지대 출범과 경제연합의 구상이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지연되면서, 각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를 찾아 소규모 내지는 양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각국은 해당국간 수출입에 있어서 질적, 양적 규제를 삼가하고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등 유리한 무역조건을 교환함으로써 무역증대를 꾀하였다. CIS 경제통합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된 무역협정은 참여한 국가의 수에 따라 양자간(bilateral) 그리고 복수국가간(plurilateral) 무역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TACIS와 러시아 농업부의 SIAFT(Support to Improving Agriculture and Food Trade Among the New Independent States)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루어진 한 연구조사는 2001년 초까지 CIS 12개국간 총 73개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²⁴⁾ 이중 러시아는 CIS 11개 회원국 모두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이처럼 CIS 내 대부분의 국가의 무역관계는 상호 무역협정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조각보("patchwork")와 같은 양상으로 종종 묘사된다.

양자간 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이룬 경우로 러시아, 벨로루시간의 국가연합을 들 수 있다. 1994년 경제 및 통화제도 통합에 대한 조

24) TACIS(2001b).

약(Treaty o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조인을 통해 양국은 단계적인 통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연합을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첫 단계로 양국간 모든 무역상품을 관세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최근 벨로루시가 러시아의 무역정책을 채택한 이후에는 양국간 관세동맹의 출범이 진행중이다.²⁵⁾ 양국은 최고회의(Supreme Council of the Community), 양국의 공동의회, 집행위원회 등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최근에는 2002년도 예산을 순조롭게 책정하였으며, 곧

〈표 3-1〉 CIS 내 양자간 무역협정 현황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			×		×	×	×	×		×	
아제르바이잔		=		×			×	×			×	
벨로루시			=				×	×			×	
그루지아	×	×		=	×		×	×		×	×	×
카자흐스탄					=	×	×	×	×		×	
키르기스스탄	×				×	=	×	×			×	×
몰도바	×	×	×	×	×	×	=	×		×	×	×
러시아	×	×	×	×	×	×	×	=	×	×	×	×
타지키스탄	×				×			×	=			
투르크메니스탄				×			×	×		=	×	
우크라이나	×	×	×	×	×	×	×	×		×	=	
우즈베키스탄				×		×	×	×				=

주: ×은 양자간 협정이 서명된 경우; 회색 칸은 효력이 발효된 경우.

자료: TACIS(2001b).

25) 그러나 아직 양국은 2001년까지 역외상품에 대한 단일관세를 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어 벨로루시가 러시아의 루블화를 공식화폐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간 국가연합 구상은 최근 들어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지역협정에서 역시 앞서 광역경제통합 추진에서 발견되었던 문제점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약의 체결만 이루어졌을 뿐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73개의 역내 양자간 무역협정 가운데 효력이 발생한 것은 절반을 겨우 넘어선 43개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외지향성이 낮거나 양국간 경제적 의존도가 낮아 양자간 실현 가능한 교역규모는 제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교역확대 기대는 애초부터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하지만 1998년의 러시아 외환위기 이후 양자간 일방적으로 무역장벽을 결정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다. 방대한 자유무역 예외조항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양자간 무역협정의 경우에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²⁶⁾

한편,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 확대에 그치지 않고 CIS에서는 소규모 다자간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TACIS의 2001년 보고에 의하면 현재 CIS 내에는 본 보고서가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는 EEC를 비롯, GUUAM(Georgia, Ukraine, Uzbekistan, Azerbaijan and Moldova), 중앙아시아 협력체(Central Asian Cooperation, CAC), CIS 경제연합, CIS 공동농산품시장(Agreement of Common Agrarian Market, CAM) 등 총 5개의 유력한 다자간 무역협정이 결성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²⁷⁾ 이

26) 러시아가 WTO가입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제출한 1996년 자료에 의하면 자유무역협정의 광범위한 적용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에서 면제받는 예외품목의 리스트가 너무 많아, 러시아와 CIS 회원국 사이 교역중 약 40%만이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ACIS(2001a).

27) 중앙아시아 경제연합(Central Asian Economic Union, CAEU)은 2001년 12월 우즈베키스

들 협정은 단순한 무역관계의 개선 이상의 경제협력 강화, 나아가 EU와 같은 형태의 발전된 경제연합을 달성이라는 목표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CIS 하부 지역조직(subregional organization)으로 정의되는 복수국가 간 지역경제통합체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CIS 내 대외경제정책 및 군사·안보정책상의 분할구도가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구소련 지역에서 점차 脫러시아적 의지가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 내 경제 및 정치의 분할구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많은 경우 EEC와 GUUAM의 출범이후 이러한 현상이 더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각 기구에서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 확대와 향후 발전방향이 이제까지 CIS 경제연합으로 이어져온 CIS 광역경제통합 노력에 어떠한 시사점을 가질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CIS 광역의 경제

(표 3-2) 복수국가에 의한 CIS 내 무역협정 동향

기구	설립연도	참가국
CIS	1991년	발트 3국을 제외한 구소련 지역 12개국
GUUAM	1996년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우즈베키스탄(1999년 가입)
중앙아시아 협력체 (CAC)	1995년(중앙아시아 경제연합) 2001년(중앙아시아 협력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1999년 가입)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EEC)	1995년(관세동맹) 2000년(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1999년 가입)
CIS경제연합 (CIS Economic Union)	1994년	발트 3국을 제외한 구소련 지역 12개국
공동농산품시장 (CAM)	1998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자료: TACIS(2001a).

탄의 수도 타쉬켄트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CAC로의 재출범을 선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Cohen(2002)을 참고하기 바람.

뿐만 아니라 정치관계에 대해 시사점을 가질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제4장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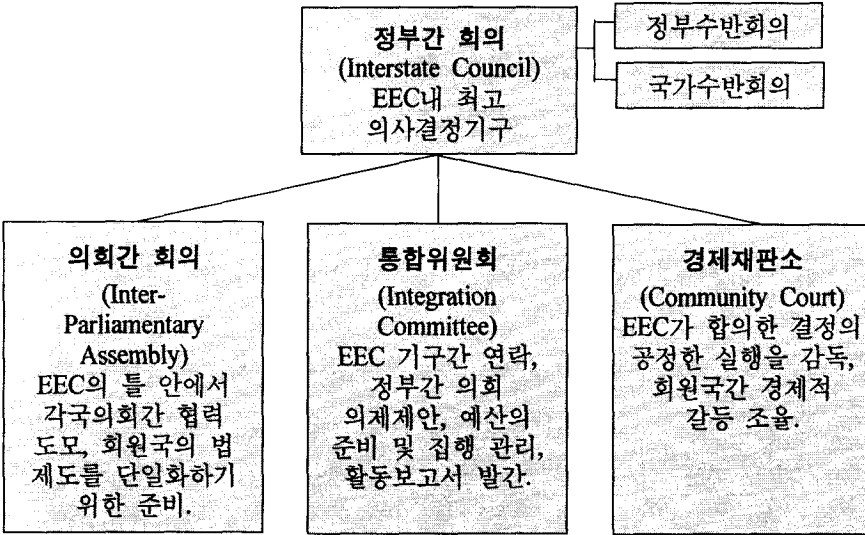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5개 다자간 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큰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EEC를 통하여 CIS 경제통합체 출범이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역내뿐 아니라 역외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나. EEC의 출범과정과 특징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EC)는 CIS 내 존재하고 있는 기타 소규모 경제통합체보다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을 달성하고자 2001년 6월 공식 출범하였다. 공식출범에 앞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5개국 정상은 2000년 10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기존의 CIS 관세동맹체제를 바탕으로 EEC를 창설하는데 합의하였다.

2001년 7월 말의 통합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EEC 각 기구의 활동에 대한 법적구속력 및 기구의 법적지위를 결정하였다. 2001년 9월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2002년도 예산을 총 8,300만 루블 규모에서 결정하고 EEC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러시아 정보국 출신의 그리고리 라포타(Grigory Rapota)를 선출하였다. 나아가 산하 세부조직의 구성을 위한 안전검토를 진행하는 등 2002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준비를 마쳤다. 그밖에 2001년 하반기 중 각국 관세위원회장 회의, 중앙은행장 회의 등이 이어져, 앞으로 정부의 관련기관간 정책조정을 통해 향후 무역 및 기타 경제분야에서 단일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그림 3-1) EEC의 조직과 기구별 기능



자료: EEC(2000).

2001년 말까지 EEC 사무국의 조직과 예산확보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됨에 따라, 관세동맹의 재출범을 계기로 하는 5개국간 심화된 경제통합의 실현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EEC 내 준비된 기구의 조직은 CIS 조직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이미 기존 CIS체제 내에서 군사 및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사안에서 폭넓은 국가간 협력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기구의 법적지위 및 결정된 사안의 준수에 대한 구속력이 부재하는 가운데 실제 실행성과는 미흡하였다. 반면 EEC는 기구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하고 기구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UN, WTO 등 국제기구에 지역주의로 등록하였다. 더 나아가 EEC의 기구운영을 위한 예산부담 및 의결권을 국가별로 배분하고 가중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점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물론 투표과정에

서 러시아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 여전히 러시아 주도의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회원국간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통합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방침을 택하고 있다. 한 예로 2001년 6월 17일에서 19일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는 EEC의 출범에 대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통합추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내 통합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경제통합은 언제나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야 했으나,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그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제정비가 완성 이후 단일경제권 실현을 향한 첫 단계로서 EEC는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중이다. 이러한 활동은 향후 단일관세권(Common Customs Space)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단일경제권(Common Economic Space)의 완성을 지향하나, 몇 가지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첫째, 교역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중조세의 방지 노력이 있다. 우선 2001년 7월부터 EEC 5개국은 국별 VAT 부과제도를 통일하여 CIS產 상품의 경우 수입당사국에서 VAT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²⁸⁾ 이것은 수입처와 수출처 양국에서 VAT가 부과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고 국가간 교역으로 발생하는 징세소득이 각국 정부 재정으로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역내조세 및 관세의 인화가 이루어질 경우 일부 국가는 CIS 역내수출에 대한 징세 기회를 포기하여야 하므로 재정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28) 수입처의 국가가 VAT를 부과하는 경우는 목적지 시스템("destination system"), 반대로 수출처의 국가에서 VAT가 부과되는 경우는 원산지 시스템("origin system")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Michalopoulos(1997) p.10을 참고.

둘째, 역외물품에 대한 단일관세율을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하였다. EEC는 공동의 무역정책 채택을 통해 실질적인 관세동맹을 실현하고자 하는 바, 이미 단일관세율을 제정하기 위한 통합위원회 내 작업반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9월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향후 단일관세 도입과 실행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국 통관절차, 대외무역통계 작성방법 등에서 관련 기준을 단일화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역외상품에 대한 단일관세의 도입은 EEC 역내관세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킬 것이 우려되며, 도입과정에서 각국의 의견차이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²⁹⁾

셋째, 경제 및 기타분야 협력강화가 추진될 것이다. 2000년 10월 아스타나 회의를 통해 공개된 EEC 합의문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회원국 간 경제협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합의문은 협력 확대 가능 분야로 경제구조조정, 공동회계/지불 시스템의 구현, 통화 및 금융제도의 상호 호환성 유지, 역내생산 및 기업활동에 대한 동등한 조건 보장,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공동개발 및 연구확대, 금융산업에 대한 단일규제체제 마련, 역내 투자여건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특히 역내 운송시스템 통합과 역내 단일에너지 시장의 구성은 CIS의 특수한 경제협력현안으로서, EEC 5개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CIS 내에서 이미 추진되었던 여러 다자간 협정이 방대한 과제의 열거에 그친 경우가 많았던 선례에 비추어보면, 산적한 현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EEC 합의문 이후 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29)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러시아는 자국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해 높은 수입관세를 희망하지만, 카자흐스탄은 국내 자동차 수급에 대한 차질을 우려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관세가 결정되기를 희망한다.

2. EEC의 대외교역관계

다음에서는 EEC의 지역별, 품목별 교역구조를 분석함으로써 EEC 역내의 교역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CIS 관세동맹이 추진된 1995년 이후 5개국간 교역관계 변화를 점검하여, 향후 EEC의 출범이 가져올 역내의 경제관계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가. EEC의 지역별 교역구조

1) EEC 교역관계의 특징

1960년대 개발도상국들은 이미 역내 무역을 증진하고 산업을 보호하여 국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서 지역 내 통합경제의 구성의 가능성을 널리 검토하였다.³⁰⁾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추진된 일단의 개발도상국간 경제통합의 사례는 자유무역 확대의지,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경제통합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³¹⁾ 물론 CIS와 같이 체제전환 이후 대외교역의 감소를 경험한 경우에는 지역 내 자유무역 확대에 앞서 경제에서 교역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표 3-3>에 따르면 EEC 5개국은 2000년 현재 CIS 전체 명목GDP의 약 80.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러시아가 EEC 전체대비 88.6%을 차지하면서 경제규모 면에서 EEC 역내 경제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GDP대비 수출비중에서 EEC 5개국은 전반적으로 CIS 지역 내에서는 상위의 대외개방도를 기록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2000년 GDP의 약 80%을

30) De Melo, Arvind and Rodrik(1993).

31)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통합은 남-남 통합(South-South Integration)으로 부를 수 있다.; *Ibid*, Jovanovich(1998), Yeats(1998).

수출하여 동기간 CIS 내에서 최고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벨로루시와 카자흐스탄 또한 각각 63%, 50%를 기록하여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는 41%, 키르기즈스탄은 39%로 EEC 기타 회원국에 비해 낮은 대외지향도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CIS의 전반적인 수준에 비교하면 평균 이상의 수준이다. CIS 내 기타 협정들과 비교할 때 역내 국가의 대외지향도 및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EEC가 교역확대라는 목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차적 조건은 이룬 것으로 보인다.

(표 3-3) EEC 5개국과 기타 CIS 회원국의 대외부문동향(200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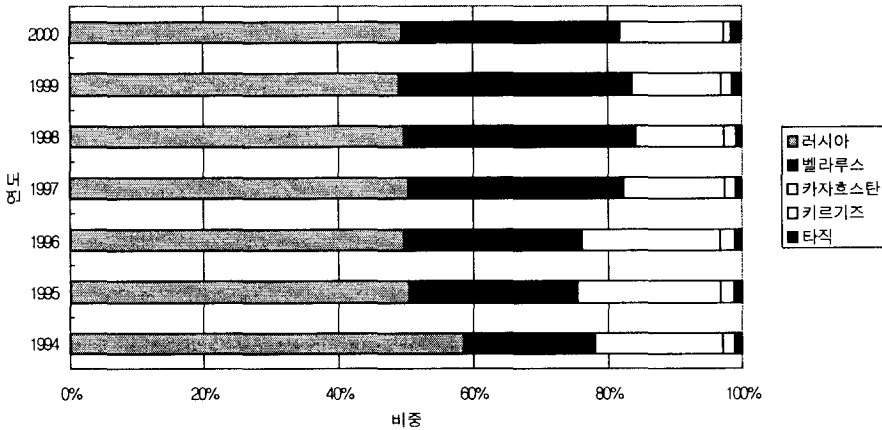
(단위: 백만 US\$)

	수출	수입	명목GDP	대외개방도
EEC 5개국				
벨로루시	7,342	8,489	11,700	0.63
카자흐스탄	9,138	5,052	18,200	0.50
키르기즈스탄	502	554	1,300	0.39
러시아	102,998	33,853	250,900	0.41
타지키스탄	784	675	1,000	0.78
기타 CIS국				
아제르바이잔	1,745	1,172	4,900	0.36
아르메니아	300	885	1,900	0.16
그루지아	330	704	3,000	0.11
몰도바	805	1,347	1,300	0.62
투르크메니스탄	2,505	1,788	4,400	0.57
우크라이나	14,579	13,955	39,000	0.37
우즈베키스탄	2,126	2,111	13,800	0.15

주: 대외개방도는 수출/명목GDP임.

자료: IMF(2001), PlanEcon(2001).

〈그림 3-2〉 EEC 역내교역의 국가별 구성(1994~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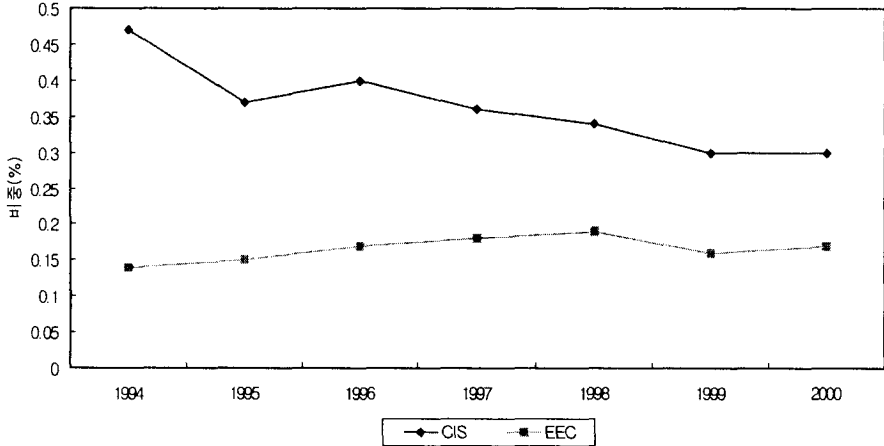
자료: IMF(1998~2001).

앞서 EEC 회원국 가운데 역내 총 GDP에서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던 러시아는 5개국간 역내교역에서 역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역내교역의 구조를 지역별로 조사해보면 러시아의 對EEC 연간 교역규모가 EEC 총 역내교역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2 참고) 역내에서 발생하는 무역을 소화해낼 규모의 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여타 CIS 내 다자간 협정보다 EEC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반면 러시아를 제외한 관세동맹 참가국간 교역구조의 보완성은 약하므로 러시아 이외 회원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은 기대할 수 없다.³²⁾

EEC 전반적인 대외교역관계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구소련지역에서 역외국가로의 교역상대국 다변화에 따른 교역구조 재편성이 다른 CIS 회원국보다 빠르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EEC의 전체 대외 무역실적에서 역내무역의 비중은 CIS 12개국 전체교역에서 역내교역 비중

32) 이성규·최병희(1997).

(그림 3-3) 권역별 역내교역의 비중 변화(1994~2000)



자료: IMF(1998~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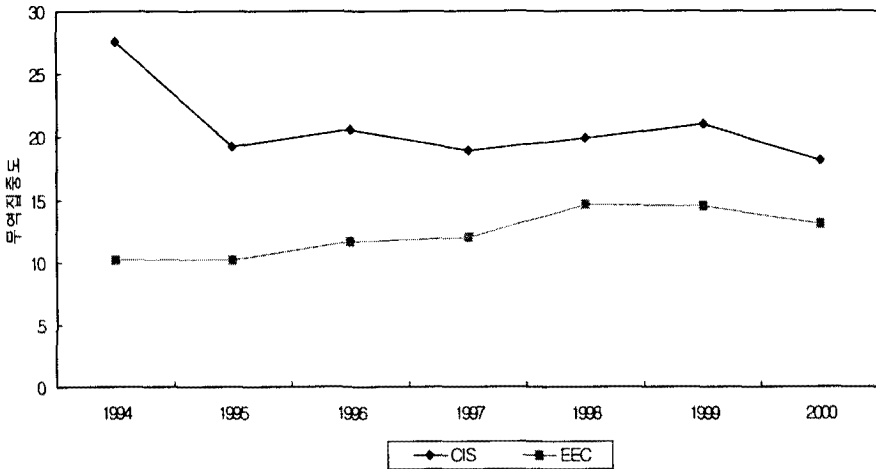
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림 3-3>은 1994년부터 IMF가 집계한 교역동향 데이터를 이용하여, EEC 5개국간 교역이 5개국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CIS 12개국의 총무역에서 CIS 역내교역 비중과 비교하고 있다. 그림에 의하면 CIS 전체의 대내교역 비중이 약 50%인 반면, EEC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4년에서 1998년까지 서서히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20%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EEC 5개국간 교역관계는 무역집중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외환위기 이전까지 꾸준히 강화되어왔다.³³⁾ <그림 3-4>에 의하면 EEC에서 교역집중도는 1998년까지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대외교역이 회복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역내교역이 발전하였음을 의미하는바,

33) 특정 지역내 총 교역액에서 역내교역의 비중을 비교하는 경우, 포함되는 국가가 많아 질수록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지역의 역내교역의 중요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무역집중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무역집중도는 “역내교역의 비중/전세계 교역에서 국가교역의 비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Frankel(1996)을 참고.

역내교역으로의 집중은 비중의 증가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높은 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4) 권역별 역내교역의 집중도 변화(1994~2000)



자료: IMF(1998~2001).

앞서 살펴본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EEC 역내교역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EEC 회원국 경제가 CIS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대외지향도를 보이고 있다. 역내 무역의 비중은 외환위기 전까지 높아져왔고 1999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최근 CIS 전체적으로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역내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교역확대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러시아라는 CIS 최대의 시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EEC의 출범과 함께 각 회원국들은 CIS의 기타 국가와 비교해서 역내에 대규모 시장을 확보하는 잇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EEC는 CIS 일반적인 경향에 비해 역외시장에 대한 지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지역주의 창설 이후 자유무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소득증가효

과는 자연스럽게 역외교역의 확대로 이전되어 관세동맹 심화시 높은 무역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기대된다.

2) 지역별 교역구조의 발전

EEC 5개 회원국 경제에서 역내무역의 중요성이 이미 높아져 왔으나 국별 교역구조는 이같은 동향이 상당히 러시아에 편중되어 진행되어왔음을 보여준다. 즉 EEC 역내 무역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EEC 4개국 시장에서 러시아産의 진출동향을 연도별로 알아보면 각국 시장에서 러시아産 상품의 점유율은 연도별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승한 것을 2000년과 1994년의 단순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3-4) EEC 4개국의 러시아産 상품수입 현황(1994~2000)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4	1,293	36.3	1,874	62.9	69	21.8	61	11.2
1995	1,900	49.9	3,089	56.1	105	26.8	136	16.8
1996	2,325	54.8	3,522	50.8	175	22.0	74	11.1
1997	1,969	45.8	4,673	53.8	191	26.9	115	15.3
1998	1,712	39.4	4,670	54.6	204	24.2	102	14.4
1999	1,351	36.6	3,767	56.4	109	17.9	92	13.9
2000	2,460	48.7	5,550	65.4	133	24.0	105	15.6

주: 비중은 러시아 상품의 시장점유율임.

자료: IMF(1998~2001).

특히 4개국간 관세동맹의 창설이 처음으로 결정되었던 1995년 직후에는 러시아 상품이 각국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현저한 상승을 기록하였다. 러시아와 국가연합을 추진중인 벨로루시에서 역시 러시아 상품의

시장점유율은 1996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나머지 국가에서 러시아 상품의 점유율은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외환위기로부터 각국이 빠른 회복을 이루어내면서 1999년 이후 러시아 상품의 EEC 역내 점유율은 다시 빠르게 상승하였다.

반면 <표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러시아 시장에서 EEC 4개국의 점유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꾸준히 러시아 시장을 확보해온 벨로루시의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3개국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카자흐스탄이 1.9%의 점유율 신장을 기록하였으며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약간의 점유율 확대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는 1994년 대비 2000년까지 각국 시장에서 골고루 점유율 상승을 시현한 러시아産 수출품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産 상품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 각국은 러시아 시장진출에서 부진을 보임에 따라 국가별로 상당한 규모의 對러시아 무역적자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러시아의 EEC 4개국으로부터 수입(1994~2000)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총수입 (세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4	38,600	1,996	5.2	2,093	5.4	98	0.3	90	0.2
1995	46,399	2,742	5.9	1,957	4.2	101	0.2	167	0.4
1996	44,504	3,041	6.8	2,695	6.1	144	0.3	88	0.2
1997	53,615	2,746	5.1	4,780	8.9	149	0.3	98	0.2
1998	45,429	1,914	4.2	4,608	10.1	133	0.3	61	0.1
1999	30,286	1,391	4.6	3,236	10.7	95	0.3	111	0.4
2000	33,853	2,197	6.5	3,764	11.1	88	0.3	237	0.7

자료: IMF(1998~2001).

주: 비중은 각국 상품의 러시아 내 시장점유율

이와 같이 EEC 역내 교역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점차 긴밀해지고 있으며 특히 EEC의 실질적인 출범에 앞서 러시아는 이미 에너지와 연료, 기계류의 공급원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져왔다.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 시장에서 자국생산품의 수출 확대 면에서는 성과가 미진하였던 바, EEC 내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4개 회원국은 관세동맹의 심화를 계기로 러시아와 교역관계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EEC 역내 자유무역이 확대될 경우 교역조건을 개선하여 러시아산 상품을 값싸게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EEC 역내에서 심화되어온 對러시아 무역수지 불균형을 고려한다면 각국은 무엇보다도 향후 러시아 시장으로의 진출기회를 보장받고자 기대하고 있다.³⁴⁾

(표 3-6) EEC 각국의 對러시아 교역수지 동향(1994~2000)

(단위: 백만 달러)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1994	1,438	1,293	145	1,158	1,874	-716	59	69	-10	46	61	-15
1995	2,366	1,900	466	2,062	3,089	-1027	114	105	9	95	136	-41
1996	2,484	2,325	159	3,024	3,522	-498	134	175	-41	79	74	5
1997	2,288	1,969	319	4,780	4,673	107	99	191	-92	64	115	-51
1998	1,611	1,712	-101	4,608	4,670	10	84	204	-120	49	102	-53
1999	1,139	1,351	-212	3,222	3,767	-545	71	109	-38	115	92	23
2000	1,784	2,460	-676	3,716	5,550	-1,834	65	133	-68	259	105	154

자료: IMF(1998~2001).

34) EEC 5개국간 교역이 주로 러시아와의 양자관계로 집중되는 양상 속에 러시아와 기타 국가간 대외교역 및 경제규모에서의 심한 불균형이 발견되고 있어, 역내 교역관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메리카 경제권에서 발견되는 수레바퀴형(hub-and-spoke)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Kowalzyk and Wonnacott, 1992).

나. 품목별 교역관계의 변화

이번 장에서는 EEC의 지역별 교역구조를 품목별로 조사함으로써 역내 및 역외무역의 발전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CIS 역외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CIS로부터 수입조건의 변화보다는 수출시장으로서의 CIS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여기서는 EEC의 지역별 수입구조를 품목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EEC 개별 회원국의 교역구조를 모두 다루지 못하였다. 대신 EEC 5개국 가운데 금액 면에서 최대의 교역을 기록하고 있는 러시아의 수입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3-7>은 1996년에서 1999년 사이 EEC 4개국, 기타 CIS국 7개국, 그리고 EU 15개국과 러시아간 교역구조를 SITC 1단위에 의해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서 비중은 러시아가 전세계로부터 수입한 해당상품의 총 금액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 수입액의 비중으로, 상품별 러시아 시장 내 점유율로 볼 수 있다. 교역상대국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EEC, EEC를 제외한 기타 CIS 7개국, CIS 역외국이 그것이다. CIS 역외국으로는 구 소련 해체 이후 CIS와 경제관계를 증가시키고 있는 EU 15개국을 선택하였다.

<표 3-7>은 품목별, 지역별 교역구조의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CIS 역외 시장으로서 EU로부터 수입된 상품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SITC 기준 4그룹, 6그룹, 7그룹은 1996년에서 1999년 사이에 각각 9.0%, 10.4%, 7.8%의 점유율 신장을 기록하였다. 반면 기타 CIS 7개국 상품은 러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점점 잃고 있다. 기타 CIS 7개국의 경우 제시된 10개 모든 상품그룹에서 시장점유율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0, 1, 6 그룹은 조사 기간 내에 10%에 달하는 점유율 감소를, 3과 5 그룹은 5% 이상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EEC의 경우 그동안 회원국이 전반

〈표 3-7〉 지역별 러시아 수입구조(1996~1999)

(단위: 천 US\$, %)

	EEC 4개국		EEC를 제외한 CIS 7개국		EU 15개국		전세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SITC 0							
1996	583,717	6.5	1,957,856	21.8	2,311,519	25.8	8,965,311
1997	682,903	6.9	1,216,602	12.3	2,885,595	29.1	9,931,344
1998	332,154	4.3	705,382	9.2	2,116,396	27.5	7,685,555
1999	325,277	5.6	581,765	10.0	1,543,688	26.5	5,832,069
SITC 1							
1996	48,720	3.2	585,425	38.6	390,479	25.7	1,517,577
1997	71,235	3.5	583,504	28.5	629,976	30.8	2,048,531
1998	72,595	3.7	462,531	23.5	523,986	26.6	1,967,499
1999	60,946	5.5	290,258	26.3	306,869	27.8	1,102,497
SITC 2							
1996	638,271	28.0	572,368	25.1	313,397	13.7	2,283,326
1997	690,368	28.7	552,320	22.9	392,262	16.3	2,408,019
1998	623,389	31.6	415,894	21.1	310,788	15.7	1,975,723
1999	503,022	26.4	466,280	24.5	272,973	14.4	1,902,176
SITC 3							
1996	965,046	57.9	248,669	14.9	125,780	7.6	1,666,169
1997	1,158,815	53.3	264,747	12.2	176,418	8.1	2,174,671
1998	693,595	47.5	129,043	8.8	128,792	8.8	1,461,765
1999	445,673	57.7	62,319	8.1	54,468	7.6	771,904
SITC 4							
1996	891	0.2	87,995	23.9	131,377	35.6	369,022
1997	371	0.1	30,190	5.7	221,031	41.9	527,043
1998	1,849	0.4	26,632	6.1	202,811	46.2	438,688
1999	675	0.1	69,680	13.1	237,582	44.6	532,296

	EEC 4개국		EEC를 제외한 CIS 7개국		EU 15개국		전세계 금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SITC 5							
1996	123,071	2.8	508,875	11.6	2,194,783	50.0	4,387,520
1997	96,797	1.2	242,698	4.7	2,836,459	55.0	5,162,009
1998	50,365	1.2	227,859	5.4	2,398,287	56.3	4,259,844
1999	43,285	1.4	192,342	6.3	1,653,700	54.0	3,064,397
SITC 6							
1996	507,670	7.9	2,332,984	36.3	2,133,641	33.2	6,435,453
1997	288,829	4.7	1,773,532	28.7	2,457,272	39.7	6,190,710
1998	138,650	2.7	1,438,554	28.3	2,100,615	41.3	5,092,294
1999	158,645	4.2	987,512	26.0	1,659,647	43.6	3,804,954
SITC 7							
1996	227,570	1.9	1,607,014	13.4	5,891,250	48.9	12,038,755
1997	201,631	1.4	1,292,017	8.7	7,542,146	50.9	14,831,853
1998	114,980	1.0	1,017,920	8.1	6,173,070	49.4	12,497,542
1999	53,595	1.0	701,868	9.3	4,289,574	56.7	7,562,747
SITC 8							
1996	39,347	0.9	256,486	6.2	2,242,299	54.0	4,154,519
1997	39,538	0.9	274,010	6.3	2,323,531	53.1	4,377,856
1998	16,317	0.5	165,004	5.0	1,774,781	53.7	3,306,566
1999	5,761	0.3	125,979	6.4	986,260	49.9	1,974,655
SITC 9							
1996	2,907,600	15.4	18,795,280
1997	4,716,919	23.2	235,738	1.2	132,046	0.7	20,299,504
1998	4,593,898	22.6	77,726	0.4	62,143	0.3	20,310,896
1999	3,236,814	23.3	26,479	0.2	108,456	0.8	13,898,304

주: 비중은 지역별 해당연도 개별품목에서 러시아 시장 점유율; SITC 분류: 0(식물 및 산동물), 1(음료 및 담배), 2(비식용 원재료, 연료제외), 3(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4(동식물 유지 및 왁스), 5(화학물 및 관련제품), 6(재료별 제조제품), 7(기계 및 운수장비), 8(기타 제조제품), 9(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자료: UN COMTRADE database.

적인 러시아 시장 진출에서 그다지 높은 성과를 올리지 못해왔기 때문에 눈에 띄는 높은 점유율 신장을 이룬 품목은 없었으며, 오히려 상품에 따라서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SITC 1그룹의 경우 조사기간중 2.3%의 점유율 회복을 이루었고 SITC 3그룹의 경우는 1999년의 경우 전년대비 약 10%에 달하는 성장을 보였다.

위의 사실로부터 조사기간중 러시아 시장의 수입선이 기타 CIS 7개국으로부터 EEC 4개국으로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기간 중 음료와 담배, 그리고 광물성 연료 등 SITC 1그룹과 3그룹의 상품에서 기타 CIS 7개국이 러시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EEC 상품의 비중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해당 품목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선이 부분적으로 기타 CIS에서 EEC 역내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는 EU 및 그 밖의 CIS 역외국가에 의한 수입품 대체가 관세동맹의 출범이나 외환위기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제4장 지역경제통합의 심화 및 확대 전망

1. EEC 역내자유무역의 확대

가. EEC 무역관계 전망

관세동맹 출범이 러시아 상품, EEC 4개국 상품, 기타 CIS 상품, 그리고 CIS 역외상품에 가져올 효과는 현재 역내국의 대외교역관계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³⁵⁾ 역내 관세동맹이 심화될 경우 맞이할 변화를 지역별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다.³⁶⁾ 첫째, 러시아는 자유무역의 확대로 EEC 역내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기타 CIS 지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EEC 4개국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EEC 4개국 또한 같은 이유로 러시아 시장에 대해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를 제외한 4개국간 다소 괴리된 교역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셋째 기타 CIS 7개국은 EEC 역내에서 경쟁력 약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동맹이 심화되기 이전에는 기타 CIS 7개국으로부터 이루어졌던 수입이 역내교역 활성화 이후 경쟁력이 높아진 러시아 및 역내수입으로 대체될 것이다. 넷째, CIS 역외국의 상품은 교역상대국 다변화가 여전히 계속되면서 EEC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지켜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입측면의 이익으로서 관세인하에 의한

35) 제4장의 분석은 보완재(complement)와 대체재(substitute)의 개념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분석을 도입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Kowalzcki and Wonnacott(1992)를 참고하기 바람.

36) 관세동맹의 결성과 함께 역외상품에 대한 공동관세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전망은 관세동맹의 발전 및 심화에 따라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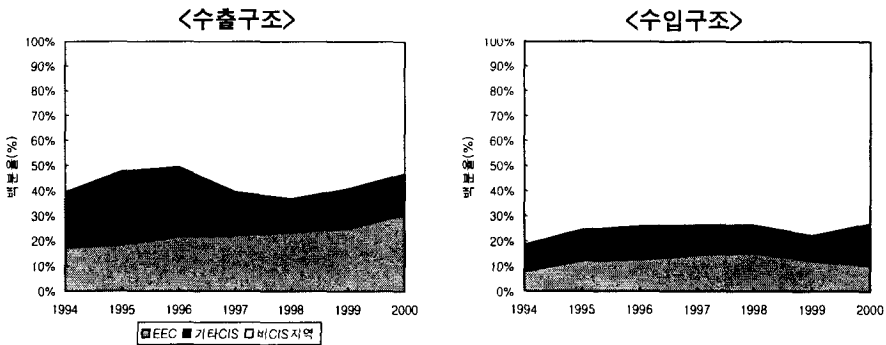
교역조건 개선이 기대되는바, EEC 4개국은 러시아産 상품의 수입에서, 러시아는 기타 EEC 역내 상품 수입에서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지역별 교역관계를 산업간 보완적 또는 대체적 관계로 구분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³⁷⁾ 첫째, 對CIS 무역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EEC 4개국 회원국은 주로 1차 상품을 중심으로 특화된 對CIS 수출구조를 가졌으므로 러시아와 상호 보완적인 교역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 대한 교역은 관세동맹이 심화될수록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러시아를 포함한 EEC 5개국은 기타 CIS 7개국에 대해 비슷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CIS 시장점유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EEC 産 제품이 EEC 역내에서 유리한 교역조건을 얻을 경우 쉽게 기타 CIS의 상품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IS 역외지역, 즉 EU국 등으로부터의 수입품은 러시아 및 관세동맹 4개국을 모두 포함한 CIS 상품에 대해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EU를 위시한 주요 서방국가의 對CIS 수출구조는 주로 고부가가치 자본재를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역내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CIS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CIS 내 공급으로 충족하기 어려운바, CIS 역외로부터의 수입을 향한 전환은 계속될 것이다. <그림 4-1>이 나타내듯이 CIS 역외시장으로 수입처 변경은 구소련 붕괴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제외한 EEC 4개국의 교역구조는 상호 보완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각국의 수출구조가 보완관계를 발전시켜 실질적으로 교역이 확대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 러시아를 제외한 EEC 4개 회원국사이의 교역관계 확대는 러시아와 각국간 양자관계 확대보다 다소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7) 물론 이장의 설명은 대략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므로 모든 국가와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CIS 내 대외교역구조 파악을 위하여 계량적 방법을 통해 실증하는 작업을 거쳐야 함을 밝혀둔다.

〈그림 4-1〉 EEC의 지역별 수출입구조



자료: PlanEcon, 각년호; IMF, 각년호.

관세동맹국가 내 자유무역확대는 역내국 상품과 CIS 역외국 상품에 대한 수입수요를 증가시켜 가격효과와 수량효과(volume-of-trade effect)를 모두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기타 CIS 7개국 상품이 경쟁적인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EEC 역내상품으로 대체되면서 EEC 시장에서 역내교역의 비중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역증가에 의한 역내국의 소득증가로 이어져 관세동맹 역내 뿐 아니라 非CIS産 수입품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나. EEC의 역외무역정책 전망

관세동맹은 자유무역협정보다 한 걸음 더 진보한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정의되는데 둘의 커다란 차이점은 관세동맹의 경우 단일관세율(Common External Tariff, CET) 추진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비한 관세동맹의 잇점 가운데 하나로서 역외상품의 유입에 의한 역내자유무역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행정적 비용이 사라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EC 5개국은 공동관세율의 제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공동관세율의 수준 및 역외상품에 대한 보호무역 강화여부에 대해 러시아와 벨로루시, 그리고 기타 EEC 3개국의 의견차가 예상되고 있다.³⁸⁾ 이는 각국이 관세동맹의 CET의 설치효과 중 하나로 역내산업의 보호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이익이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역외상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CET를 책정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상품은 경쟁관계에 있는 역외상품에 대해 EEC시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러시아 정부는 단일관세부과 확정 이후 역내시장에서 러시아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협상을 추진할 여지가 많다. 나머지 국가들 또한 당사국의 이해가 얽힌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를 희망할 것으로 보여, 각국의 입장이 골고루 반영될 경우 역내로의 관세장벽 수준은 상품별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³⁹⁾

그러나 보호주의의 수위가 조절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가능한데, 이는 벨로루시를 제외한 3개국은 역외국가와 밀접한 교역관계를 발전시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벨로루시의 경우 러시아와의 교역이 2000년 전체 수출의 50.6%, 수입의 65.4%를 차지하는 등 러시아에 상당한 편중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표 4-1>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3개국은 기타 CIS국가 뿐 아니라 지리적인 고립을 극복하고 아시아와, 더 나아가 유럽, 그리고 미주지역과의 교역관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공동관세를 비롯한 역내 단일무역정책의 방향은 향후 세계무역질서에 편입되고자 하는 EEC 각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8) TACIS(2001a).

39) Michalopoulos and Tarr(1997), pp. 4~9.

〈표 4-1〉 EEC 5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단위: 순위, 백만 US\$)

	상대국	수출					상대국	수입				
		1996	1997	1998	1999	2000		1996	1997	1998	1999	2000
카자흐 스탄	이탈리아(2)	197	357	493	419	892	독일(2)	198	368	366	288	334
	중국(3)	459	442	382	473	670	미국(3)	66	202	271	349	277
	전체	5,911	6,487	4,636	5,598	9,140	전체	4,241	4,301	4,350	3,687	5,052
키르기 즈스탄	독일(1)	3	18	197	148	145	미국(1)	199	145	197	204	147
	우즈베키스탄 (2)	115	102	39	47	89	우즈베키스탄 (3)	132	129	122	51	75
	전체	506	609	513	454	502	전체	795	709	841	610	554
타지키 스탄	네덜란드 (2)	218	229	221	222	178	우즈베키스탄 (1)	199	262	227	264	186
	우즈베키스탄 (3)	191	172	126	181	98	영국 (3)	78	10	4	70	87
	전체	772	803	597	689	784	전체	668	750	711	663	675

주: 2000년 기준 러시아를 제외한 최대의 교역상대국;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순위.

자료: IMF(2001), EIU(2001/2002).

마지막으로 EEC의 향후 역외국에 대한 단일무역정책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서 EEC 회원국의 WTO 가입협상을 들 수 있다. WTO에서는 CET가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던 기존 관세율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됨을 명시하여 지역경제통합이 지역산업에 대한 보호주의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있다. 따라서 각국이 개별적으로 WTO 가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WTO 가입협상 방향에 대치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의 CET를 제정하는 등 보호주의 강화를 위한 관세동맹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WTO의 가입이 국별로 독자적으로 진

행되고 있는바, 각국이 WTO 가입을 역내 자유무역확대보다 서둘러 추진할 경우 EEC의 공동무역정책 도입 과정은 다소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된다.⁴⁰⁾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ing Agreement, RTA)의 허용 조건으로서 모든 상품에 대한 예외없는 자유무역 실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WTO 가입이 마무리된 이후에 EEC 단일무역정책의 채택이 추진된다면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⁴¹⁾ 반면, EEC의 공동무역정책이 보다 일찍 구체화될 경우 각국은 WTO 가입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회원국 사이에 WTO 공동가입정책이 채택된다면 자유무역 확대를 모토로 역내 무역정책의 단일화 작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WTO 가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로서는 공동가입정책의 채택은 불투명하다.

EEC의 출범과 관세동맹의 심화 이후 역내시장에 대한 보호수위가 높아져 다른 CIS 회원국과 무역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각국은 외환위기의 조기극복을 맞이하여 보다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고자 희망하고 있으며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추진중에 있거나 이미 마무리하였다. 따라서 향후 단일무역정책의 방향은 EEC 각국의 무역정책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EEC 및 CIS의 향후 전망

CIS 경제연합의 실질적인 출범이 국별로 이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장

40) 1998년 키르기스스탄의 단독 WTO가입 이후 EEC 5개국은 향후 WTO의 공동가입을 추진하기로 표면상 합의하였으나, 현재 러시아가 가장 WTO가입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공동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41) WTO(2001).

기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CIS 각국은 소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CIS 경제연합과 EEC를 제외하고 3~4개의 무역협정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각 블록의 자유무역 확대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CIS 경제통합을 대신하고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참가하는 유력한 다자간 무역협정인 EEC는 CIS내 정치·경제적 구도의 전개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결성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가별 대외경제정책 및 군사·안보정책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즉 구소련 해체 10년 이후 국제정세 및 경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러시아 주도의 국제관계를 탈피하고 지역의 이익에 따른 독자적인 국제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CIS 내부에서 점차 그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국가들은 앞으로 EU가 동구로 확대되어 오면서 EU와 국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역으로서 이들 국가가 가지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서방지향적인 정책을 조심스럽게 내비치면서 EU뿐 아니라 NATO에 가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밝히고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와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구성하는 등 최근에는 러시아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와의 다각적인 관계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⁴²⁾

그러나 CIS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향후 CIS의 발전 방향에 대해 러시아의 정책과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소련의

42) 2001년 6월 정식 출범한 SCO에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참가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SCO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구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군사안보협력체인지 경제협력체인지 그 성격이 모호하다.

해체이후 신생독립국이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최근까지 CIS 질서는 러시아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러시아의 對CIS정책에 따라 지역 내 정치 및 군사안보, 경제적 사안의 방향이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⁴³⁾ 또한 러시아는 CIS 회원국간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CIS 각 지역의 러시아 영향권으로부터의 이탈이 더 이상 가속화되지 않도록 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푸틴 행정부는 2000년 작성한 대외정책에 대한 기본틀에서 CIS와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CIS 내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CIS 광역과 소규모 지역기구 모두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다.⁴⁴⁾

이러한 CIS 내부의 변화하는 정치·경제적 구도를 감안하였을 때, EEC 역내 교역구조의 발전형태는 EEC 확대여부 및 CIS 역내관계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EEC가 자유무역의 확대로 러시아와의 양자간 교역관계 뿐 아니라 역내 다자간 교역관계가 골고루 발달하여 CIS의 주요 시장으로 발전하고 역내국의 경제적인 이익이 극대화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기타 CIS국가들의 가입희망이 이어져, EEC가 CIS 광역통합체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EEC 역내 교역관계가 현재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수레바퀴살 모양의 무역구조, 소위 hub-and-spoke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역내교역은 러시아와 개별 회원국의 양자간 교역 강화만이 심화되는 경우이다. 이때 CIS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관계의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여, CIS는 복수의 경제권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현재 CIS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자립, 독자적인 경제적, 또는 정치적

43) Webber(1996)는 CIS 통합추진의 최근까지 과정을 러시아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3가지 시기로 나누고 있다.

44) Russian Foreign Ministry(2000).

대외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CIS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세계질서로의 조속한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은 현재의 다자간 또는 양자간 무역협정을 바탕으로 대외지향적인 정책추진의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EEC의 성공은 CIS 내 광역통합의 실현과 CIS 내 성숙한 관계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CIS 각국의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EEC의 5개 회원국은 관세동맹의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이미 교역 확대를 통해 경제관계를 강화하여 왔다. 러시아를 포함하는 EEC는 CIS 내 상당히 비중있는 경제권을 이룰 것이며, 관세동맹의 강화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는 CIS의 전반적인 대외경제관계 변화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

EEC 역내 자유무역확대 추진 이전부터 러시아는 CIS 내 모든 시장에서 해당품목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바, 앞으로 EEC 역내시장에서 기타 CIS 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 대체를 가속화하여 시장 내 러시아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EEC 4개 회원국은 러시아라는 역내 허브시장으로의 접근을 개선하여 교역확대 및 수입 두 가지 측면에서 교역조건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소득향상 효과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과연 러시아에 편중된 경제구도를 벗어나 다자간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공존번영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향후 EEC 확대에 관한 전망이 엇갈리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CIS 내 더 많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결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개별 회원국이 지역 내 러시아 주도의 질서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제적 이

익에 따라 보다 다변화된 대외경제관계 수립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인 러시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CIS 내 소규모 그룹별로 EU 또는 동아시아 등과 새로이 경제협력관계 강화를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CIS 광역경제협력은 앞으로 구소련 연방 공화국간 지역 내 우호강화 차원을 넘어서서 미래의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설정 하에 추진될 것이다.

한편 CIS 각국이 외환위기로부터 빠른 회복을 기록함에 따라 CIS의 대외경제관계는 급속한 발전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CIS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은 변화하는 CIS 내 통상환경에 대한 최신정보를 수집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CIS의 역내 교역 강화는 소득창출로 이어지고 이제까지 꾸준히 역외국가 상품에 대한 품목별 수요가 상승하는 추세인 점에 미루어, 향후 유망한 수출시장으로서 CIS 국가에 대한 진출 가능성에 항상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재남. 2001. 『CIS 통합운동의 동향 및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박제훈. 1993. 『CIS 역내 교역 및 금융관계 분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성규 · 최병희. 1997. 『CIS 경제통합의 추진현황과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여천 · 최병희 · 한정철. 1998. 『중·동구 및 CIS지역의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홍성원. 1996. 「CIS 경제동맹 형성전망」. 『슬라브 연구』. 통권 407호.

〈해외문헌〉

- Balassa, Bela 1991. "Economic Integration in Eastern Europe." Working Papers Series No. 636. Washington: World Bank.
- Cohen, Ariel. 2002. "Central Asians Launch Another Regional Association." in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Jan. 16 issue. Available: www.cacianalyst.org.
- Collins, Susan M. and Dani Rodrik. 1991.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in the World Econom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CIS Statistical Committee. 2000. *External Trade of the CIS Countries*. Moscow, Russia: CIS Statistical Committee.
- Dembinski, Pawel. 1991. *The Logic of the Planned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 De Melo, Jaime, Arvind Panagariya and Dani Rodrik. 1993. "New Regionalism: A Country Perspective." in J. De Melo and A. Panagariya eds.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jankov, Simoen and Caroline Freuner. 2000. "Disintegration." Discussion Paper Series No. 2545. London, UK: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 Drabek, Z. and D. Greenaway. 1984. "Economic Integration and Intra-Industry Trade: The EEC and CMEA Compared." in *Kyklos*, Vol. 37, No. 3:

- 444-69. Reprinted in M. Jovanovich ed. 1998.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ory and Measurement(Vol. I)*. London, UK: Routledge.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2001/2002. *Country Profile: Kazakhstan, Tajikistan, Kyrgyzstan*. Available: www.eiu.com.
- Eurasian Economic Community. 2000. *Agreement Establishing Eurasian Economic Community*. Moscow, Russia: EEC Integration Committee.
- Frankel, Jeffrey A. 1996. *Regional Trading Blocs in the World Economic System*.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GUUAM. 2001. "The GUUAM Group: History and Principle." Available: www.guam.org.
- IMF. 1998 ~ 2001.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 Jovanovich, Miroslav N. 1998.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New York: Routledge.
- Kaminski, Bartlomiej. 1996. "Factors Affecting Trade Reorientation of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in B. Kaminski ed. *Economic Transition in Russia and the New States of Eurasia*. New York: M.E. Sharpe.
- _____, Zhen Kun Wang and L. Alan Winters. 1996. *Foreign Trade in the Transitio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Domestic Policy*. Studies of Economies in Transformation series. Washington: World Bank.
- Kornai, Janos. 1994. *Economics of Shortage(Vol. I)*. Amsterdam, the Netherlands: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 Kowalczki, Carsten and Ronald J. Wonnacott. 1992. "Hubs and Spokes, and Free Trade in the Americas." NBER Working Paper No. 4198.
- Krivogorsky, Victoria and John. W, Eichenseher. 1996. "Some Financial and Trade Developments in the Former Soviet States." *Russian & Eastern European Finance and Trade*. Vol. 32, No. 5: 16-38.
- Krueger, Anne O. 2000. "NAFTA's Effects: A preliminary Assessment." *World Economy*. Vol. 23, No. 6: 761-775.
- _____, 1997. "Free Trade Agreements Versus Customs Unio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54: 169-187.
- Michalopoulos, Constantine. 1999. "The Integration of Transition Economies into the

- World Trading” System.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Dubrovnik Conference on Transition Economies, Durovnik, Croatia, June 23-25, 1999.
- _____, and David Tarr. 1997. *The Economics of Customs Union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Washington: World Bank.
- _____, 1993. *Trade Issues in the New Independent States*. Studies of Economies in Transformation Series. Washington: World Bank.
- _____, and David Tarr. 1992. *Trade and Payments Arrangements for States of the Former USSR*. Washington: World Bank.
- The Moscow Times*. Jan. 27, 2000. “Kuchma Wants Russia in Free Trade Zone.”
- _____, Oct 26, 1994. “Experts Question Power of CIS Economic Body.”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6. *Trade Policy and the Transition Process*. Paris: OECD.
- PlanEcon. 1997~2001. *Review and Outlook: the Former Soviet Republics*.
- Russian Foreign Ministry. 2000.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Available: www.mid.ru/mid/vpcons.htm.
- Sakawa, Richard and Mark Webber. 1999.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991-1998: Stagnation and Survival.” *Europe-Asia Studies*. Vol. 51, No. 3.: 379-415.
- TACIS. 2001a. *Recommendations and Proposals on the Establishment of a Common Agrarian Market Among the CIS and the WTO Issues*. Available: www.aris.ru(러시아 농업부 홈페이지).
- _____, 2001b. *Regional Trade Agreements Among CIS and the WTO Accession*. Available: www.aris.ru(러시아 농업부 홈페이지).
- International Trade Centre, UNCTAD/WTO. *PC-TAS Trade Analysis System on Personal Computer (1995-1999): SITC3(UN COMTRADE database)*.
- Webber, Mark. 1996. *CIS Integration Trends: Russia and the Former Soviet South*. London: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Winiecki, Jan. 2000. “Solving Foreign Trade Puzzles in Post-Communist Transition.” *Post-Communist Economies*. Vol. 12, No. 13: 261- 278.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01. “Report of the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the General Council(WT/REG/10).” Available: www.wto.org.

wto.org.

Yeats, Alexander J. 1998. "Does Mercosur's Trade Performance Raise Concerns About the Effect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2. No. 1: 1-28.

Eurasi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Futur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CIS

Yoo Jung Ha

Russia, Belarus and the three Central Asian countries of Kazakhstan, Kyrgyzstan, and Tajikistan laid the groundwork for a higher level of economic integration among the former Soviet Republics in June 2001 by declaring the official launching of the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EC). Presidents of the five member countries had already signed a new customs union treaty based on the now antiquated CIS Customs Union during summit talks in Astana, the capital of Kazakhstan, in October 2000. The purpose of this regional report is to review the economic background of the EEC and discuss the prospects for its enlargement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a large-scale economic integration encompassing all CIS countries.

With the breakdown of the Soviet Union in 1991, the 12 newly independent states (NISs) developed the idea of forging a single economic space as many of them were confronted with severe economic difficulties that demanded immediate attention. This wa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ir continued economic downfall was attributable to the weakening trade relations betwee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In the early 1990s the inter-regional supply linkage under the Soviet planned economy was abruptly

dissolved and each NIS began to establish independent trade barriers, hampering what had been a system of virtual free transactions linking republics in the Soviet era. Policy makers began to assert the need for restoring intra-CIS free trade as a solution to economic recession. This was the motivation underlying the formation of the CIS Economic Union in 1993, the first futile attempt to bind the economies of former Soviet republics together.

These most recent efforts to realize economic integration in the CIS through the EEC have sprung from a growing awareness among the transition economies that it was time for them to be integrated into the international economy. Quickly recovering from the shock of economic crisis since 1998, the transition economies are no exception to the rush to ride the wave of globalization. As regional trading blocs have been successively created across continents since the 1990s, countries in the CIS were also pressed to draw appropriate responses to the upswing of regionalism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Moreover,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in negotiations to gain membership into the European Union (EU) and will enter into the single market en masse in the near future.

This report assesses the pattern of trade relations between the fiv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EEC customs union focusing on changes in the direction of trade and commodity structure. Products traded in the EEC market can b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place of origin as follows: products from Russia, from EEC countries excluding Russia (EEC-4 hereafter), from the seven CIS countries that have not joined the customs union (CIS-7, hereafter) and, lastly, external countries. The web of trade relations between these groups of products in the intra-EEC market is

described as follows: first, EEC-4 countries tend to sell primary goods and maintain complementary relations with Russia. Second, Russia is in competition with CIS-7 for greater market shares in the entire EEC market, as Russia and CIS-7 have similar trade structures in terms of commodities. Third, products of external origin complement the commodity structure of trade within the EEC and consist of high value-added products and capital goods backed by the higher comparative advantage over domestic products.

However, trade relations are expected to undergo the following changes when the customs union, currently in the take-off stage, is fully implemented. First, imports to the EEC will begin shifting to consist largely of cheaper intra-EEC products instead of goods from the CIS-7, which are not EEC members. The high demand for Russian products in the EEC-4 will continue but prices will go down as trade barriers between the EEC-4 and Russia are gradually removed. Therefore, the position of the CIS-7 in the EEC market will weaken due to the effects of trade diversion from external to intra-regional trade. Second, trade reorientation toward western economies, on the other hand, will remain a dominant economic trend in the EEC market despite the gradually tightening ties within the customs union. The westward trade reorientation or diversification towards Western Europe has been compelling since CIS countries began to pursue trade liberalization. This trend is not likely to dissipate but will escalate even more for the time being if the customs union raises the income level of the participating economies and the income effect is translated into a rising demand for products made in non-member countries.

Despite the expectations of rising intra-regional trade under the customs union, it is not likely that the EEC countries will adopt discriminatory and

protective measures. For one thing, there is little chance that the EEC will agree to apply extremely high common external tariffs (CETs) on products from non-member countries. Member countries, rather than confining external ties within the 5-country group, want to expand bilateral economic ties with a variety of countries in Asia and North America as well as Western Europe. Some countries bids for WTO membership will also prevent them from showing protectionist tendencies, because greater trade liberalization is one of the WTOs accession conditions. Higher CETs are also against WTO rules. The WTO recommends that the customs union set its CETs below the average tariff rates that individual member countries had impos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customs union. Meanwhile, accession negotiations can possibly delay the acceptance of the common trade policy by the EEC members if countries fail to agree on a common approach for collective accession to the WTO and place greater priority on negotiations with the WTO than on talks for a common EEC trade policy.

Many CIS countries wish to be free from the umbrella of Russian influence and to establish more independent external relations,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Still, Russia is indisputably an opinion-leading country in the CIS, though sometimes elusively. Since his inauguration,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tressed the growing importance of a partnership with the CIS countries within the entire foreign policy framework. Considering the nature of CIS politics, the configuration of the EEC will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future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of the CIS. One possible outcome is that the EEC will contribute to enabling individual members to develop robust economic ties with Russia and promote plurilateral and balanced cooperation among members alike, materializing

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 Then, the EEC will become large enough to act as the seed for a large-scale united market in the CIS, similar to the single market in the EU. Or, the EEC may fail to end the pattern of hub-and-spoke trade relations, which means intra-EEC trade will remain highly concentrated on exclusive bilateral exchanges between Russia and individual countries. Provided that the hub-and-spoke pattern continues under the EEC, further enlargement is less likely as CIS countries seem unwilling to tolerate Russias predominance. Hence, the CIS will be broken down into several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which will not necessarily include Russia, but rather be oriented towards the pursuit of mutual interests between regional partners.

As many CIS countries register a faster-than-expected recovery from the economic crisi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will see subsequent changes. Recognizing the optimistic economic forecast, South Korea must prepare by collecting updated information concerning the changing business climate in the CIS. As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in the CIS is targeted at boosting the income level and expected to prompt a growing demand for non-CIS products, it is necessary to watch for new business opportunities with the CIS.

KIEP 발간자료목록(1997~2001. 12)

■ 지역리포트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朴英鎬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金恩志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朴映坤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鄭厚榮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朴映坤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河由貞

■ 지역연구회시리즈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鄭銀淑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吳勇錫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元容杰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李榮洙 · 徐煥周
00-05	日 · 北 經濟協力의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申志鎬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朴濟勳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化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蔡熙律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張善德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金正湜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嚴久鎬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楊平燮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의 評價와 尙後課題	金讚沆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金昌男 · 千寅鎬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高在模 · 全載旭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辛源龍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尹玄德
00-17	경제전환기 중 · 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李殷九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金泳世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朴繁洵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李忠烈
01-04	일본의 버블붕괴와 잃어버린 10년	姜應善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鄭基虎·李滿基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沈義燮·李光勛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尹澤東

■ 정책연구

97-01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政府의 對外通商政策	王允鍾
97-0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王允鍾 編著
97-03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礙要因과 促進方案	金準東
97-04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	崔秀雄
97-05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立法現況과 示竣點	金鍾範
97-06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	李鍾華·李晟鳳
97-07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方案	王允鍾·羅秀燁
97-08	中國經濟의 浮上和 韓國의 對應	李昌在外
97-09	東아시아 貿易·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	金南斗 外
97-10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趙明哲
97-11	韓·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策課題	鄭余泉
97-12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의 對應課題	金元鎬 外
97-13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	金寬浩 外
97-14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와 改善方案	趙顯坡
98-01	IMF體制下의 韓國經濟(1997.12~1998.6): 綜合深層報告①	張亨壽·王允鍾
98-02	中國 金融改革의 現황과 과제	李章揆 外
98-03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役割	王允鍾·金琮根
98-04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에 관한 탐색연구	權泰亨 外
98-05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成克濟
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	王允鍾 編
98-07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柳在元·李弘求
98-08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李昌在外
98-09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竣點: 투자인센티브	李晟鳳·李炯根
98-10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竣點: 投資自由地域	李晟鳳 外
98-11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張亨壽·李昌在外·朴映坤
98-12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	崔秀雄
98-13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現況, 問題點 및 開展方向	徐錫興

-
- 98-14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Byung-il Choi · Eun Mee Kim
- 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 張亨壽 · 元容杰
- 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鄭仁教
- 98-17 최근 國際投資 紛爭事例의 研究 金寬浩 · 李性美
- 98-18 通商關聯 電子商去來 論議動向과 示唆點 尹昌仁
- 98-19 中·東區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現況과 전망 鄭余泉 · 崔秉熙 · 韓貞澈
- 98-20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趙明哲 · 洪翼灼
- 98-21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全載旭 · 崔義炫
- 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曹琮和 編
- 99-02 韓·브라질 21世紀 協力 비전과 課題 金元鎬 編
-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金博洙 · 王允鍾 · 申東和 · 李炯根
-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王允鍾 · 鄭在完 · 金琮根 · 李鴻培
-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 曹琮和 編
-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평가 安炯徒 編著
-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1] 동북아 경제협력: 총괄편 李昌在
-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2]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鄭仁教 外
- 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金益洙
- 99-10 東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崔秀雄
- 99-11 IMF體制下的 韓國經濟 II(1998.7~1999.12): 綜合深層報告[2]
黃祥仁 · 王允鍾 · 李晟鳳
-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3]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李晟鳳 外
-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4]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王允鍾 外
-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 · 蔡旭 · 金準東 · 宋有哲 · 尹美京 · 徐暢培
-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 金準東 · 姜仁洙
-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鄭余泉
- 00-04 WTO 뉴라운드 工產品協商的 시나리오별 實證分析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 · 李明憲 · 朱文培
-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金準東 · 李長榮 · 李漢煥 · 金龍奎 · 崔重熹 · 許琮 · 李漳源
-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宋有哲 · 朴芝賢 · 李載玉 · 魚明根 · 任廷彬
-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の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鄭仁教·李景姬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蔡 旭·金準東·梁俊哲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趙明哲·權 栗·李哲元·金恩志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主要쟁점연구	金世植·楊斗鏞·王允鍾·黃祥仁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	尹昌仁 外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	趙明哲·洪翼杓
00-13	WTO 뉴라운드協商의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	蔡 旭·崔洛均
00-14	선진국 主要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尹昌仁·韓宅換·庾相喜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李鍾華
00-16	農産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宋有哲·朴芝賢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부문의 변화	南相烈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黃祥仁·金寅培·辛仁錫
01-04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金尙謙·朴仁元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曹琮和·金于珍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梁俊哲·金鴻律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尹德龍·朴淳讚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李鍾華·朴淳讚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宋有哲 外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外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崔洛均 外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의 시사점	尹昌仁 外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蔡 旭·徐暢培

■ 조사분석

97-01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朴相守
97-02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	鄭在完
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鄭在完

97-04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現況	李哲元
97-05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徐承源
97-06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鄭在完·權耿德
97-07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李聖揆·崔秉熙
97-08	인도네시아의 金融産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金完仲
97-09	中國의 에너지産業 現況과 韓國에 대한 示唆點	崔義炫
97-10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日本의 酒稅에 관한 研究	蔡 旭
97-11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美國의 「휘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李鎬生
97-12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	權 栗
97-13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洪翼杓
97-14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	金琮根
97-15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	朴月羅
97-16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 投資制度	李炯根
98-01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羅成燮
98-02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전망	鄭仁敦·李昌在 編著
98-03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趙潤濟·金鍾燮
98-04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	李永雨
98-0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鄭聖哲·李明振
98-06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朴成勳
98-07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과 對APEC 정책	李載裕·李載榮
98-08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朴泰鎬·文字植·白珍玢
98-09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孫正植·韓弘烈
98-10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朴氣弘
98-11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통상환경의 변화	李鍾華 外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김애리
98-13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蔡 旭
98-14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蔡 旭·徐暢培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金裕燦·李晟鳳
99-01	OECD연구시리즈②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李晟鳳·李炯根
99-02	주요 산업별 해외 M&A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金琮根
00-01	투명性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	朴映坤·金于珍·羅秀燁
00-02	주요 이슈별 韓·美 通商懸案 政策課題	梁俊哲·金鴻律

00-03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 출범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金元鎬 · 姜文盛 · 羅秀輝 · 金眞梧
00-05	國際協力體 設립을 통한 北韓開發 지원방안 張亨壽 · 朴映坤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鄭在完
01-02	아프리카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수출확대 방안 朴英鎬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孫讚鉉 · 尹眞那
01-04	WTO 農業協商 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宋有哲 · 朴芝賢
01-05	韓 · 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金良姬 · 金鍾杰
01-06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鄭余泉
01-07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權奇洙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權 栗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金眞梧
01-10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李哲元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 논의: 공중보전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尹美京 · 李性美
01-12	北韓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南北 협력방안 趙明哲
01-13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洪翼杓

河由貞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1999)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연구원(現, E-mail: yjha@kiep.go.kr)

主要論文

Development of Trade with the EU in CEECs and Its Implications for
Economic Transformation (2001)

「러시아 대외채무협상 동향과 전망」(2001) 외

지역리포트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2001년 12월 20일 인쇄

200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景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FAX: 3460-1144

인쇄 한라인쇄 (02)503-3011 대표: 박노부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禁함】

ISBN 89-322-6050-8 94320
89-322-6017-6(세트)

정가 5,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성과를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2천원		1만원
B	(월간)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C	(주간)KIEP주간세계경제분석	5만원		2만 5천원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권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週報(인쇄물), 전문가들 토의자료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C 주보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